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㉓	2	㉒	3	㉒	4	㉔	5	㉓
6	㉓	7	㉕	8	㉑	9	㉔	10	㉒
11	㉔	12	㉓	13	㉔	14	㉓	15	㉕
16	㉒	17	㉕	18	㉒	19	㉔	20	㉕
21	㉕	22	㉓	23	㉒	24	㉔	25	㉕
26	㉔	27	㉒	28	㉓	29	㉒	30	㉔
31	㉑	32	㉓	33	㉔	34	㉒	35	㉒
36	㉕	37	㉒	38	㉓	39	㉒	40	㉕
41	㉔	42	㉓	43	㉓	44	㉑	45	㉓

해설

[1 ~ 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통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발표의 3문단에서 발표자는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에 꼭 필요한 요소인 구조 탐지 센서의 종류가 크게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 센서로 나뉜다고 언급하였다. 그런 다음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 센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청중에게 ‘로봇 청소기가 어떤 원리로 청소를 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로봇 청소기가 더욱 꼼꼼해질까요?’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② 발표자는 초기 로봇 청소기를 보여 주는 화면,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를 보여 주는 화면 등 시각 자료를 제시했지만,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④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발전하면 청소가 더욱 편해지겠지요?’와 같은 표현은 발표의 화제인 로봇 청소기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표자가 발표 대상인 로봇 청소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발표자는 초기 로봇 청소기,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에 쓰이는 구조 탐지 센서 등에 대해 설명했을 뿐, 로봇 청소기를 어떤 친숙한 소재에 빗대면서 표현하지는 않았다.

2.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㉒)

발표에 따르면 ㉑에 나타난 초기의 로봇 청소기는 벽이나 물체에 가까워지면 ‘무작위 각도만큼’ 회전한 뒤 다시 전진한다. 그러므로 ㉑의 청소기는 같은 위치에서 청소를 시작하더라도 청소하는 경로가 일정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㉑에 나타난 초기의 로봇 청소기는 발표자가 2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벽이나 물체에 가까워져야 회전하며 방향을 바꿀 것이다. 즉, 벽이나 물체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③ ㉒에 나타난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는 발표자가 2문단에서 설명하였듯이 청소 시작에 앞서 구조 탐지 센서로 실내의 구조와 물건들의 위치 및 자기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최적의 청소 경로를 설정한 뒤 청소를 시작할 것이다.

④ 발표에 따르면, ㉒에 나타난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는 미리 설정한 청소 경로의 영역을 전부 치웠

을 경우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인지하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㉑의 초기 청소기는 청소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또는 배터리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청소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㉑의 청소기와 ㉒의 청소기가 청소를 마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⑤ 발표에 따르면 ㉑의 초기 청소기는 벽이나 물체에 접근할 경우 무작위 각도만큼 회전한 뒤 다시 전진하기 때문에 청소되지 않는 공간이 생긴다. 반면 ㉒에 나타난 매핑 방식의 청소기는 자신이 청소해야 하는 경로를 미리 설정해서 청소한다. 그러므로 청소 공간의 면적 등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㉒의 청소기는 ㉑의 청소기가 청소하지 않은 공간까지 치울 가능성, 즉 ㉑의 청소기보다 넓은 면적을 청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㉒)

발표자는 초기의 로봇 청소기가 ‘정해진 시간만큼 또는 배터리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청소를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초기의 로봇 청소기가 언제까지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초기의 로봇 청소기에 근접 센서가 있어서 벽이나 물체에 가까워졌는지를 인식한다고 언급했으나, 해당 센서가 어떤 방법으로 벽이나 물체를 인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카메라 센서가 천장을 이용해서 실내 구조를 파악한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원리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에게 낯선 내용이므로 카메라 센서가 천장을 통해 실내 구조를 파악하는 원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초기의 로봇 청소기가 배터리를 다 소모할 때까지 청소를 한다고 설명했으나, 매핑 방식의 로봇 청소기가 배터리를 다 소모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가구 배치 변경 등으로 실내 구조가 이전과 달라질 경우 레이저 센서의 정확한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사를 해서 청소해야 하는 공간 전체가 바뀔 경우 레이저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4 ~ 7] (화법, 작문)

4. [출제의도] 작성된 글 속에 반영된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㉔)

㉑ 저출산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과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정 인구를 계산하고 정책을 제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㉒ 도입부에서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7.3% 감소하며 197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활용했다.

㉓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정 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적정 인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출생률 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국민들도 그에 수긍하고 출산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와 같이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㉑ 생소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은 (가)에 없다.

㉒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정책이 실시되었는지는 (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즉 과

거의 정책과 글쓴이 자신의 의견 비교는 (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제시된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가)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불러오며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야기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저출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제시하면서 저출산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올해 신생아 수가 197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과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가)에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가)에 제시되지 않았다.

②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제시했으므로, 저출산 해결의 의의는 그러한 문제의 해소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러한 방안을 도출해 낸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저출산의 문제점과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뿐, 다른 사회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⑤ 저출산으로 인해 생겨날 다른 문제를 언급하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했으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6.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와 사회자의 사고 과정과 그에 따른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B]에서 토의 참여자인 ‘학생 2’는 ‘학생 1’이 내놓은 의견으로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완곡하게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토의 참여자의 의견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사회자’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꾸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학생 2’의 의견에 공감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질문을 통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면서 토의의 흐름을 이어 갔다.

[오답풀이] [A] : ‘학생 1’이 (가)에서 제시했던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서 밝히자, ‘사회자’는 ‘학생 1’이 (가)에서 일자리 환경의 변화로 꼽은 것이 고령자의 근로 기간 연장뿐임을 떠올려서 질문을 던졌다. 이를 듣고 ‘학생 1’은 다른 참여자의 글에서 보았던 취업난 심화, 노동 대체 현상 등도 일자리 환경의 변화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자’는 ‘학생 1’의 발언에서 궁급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C] : ‘학생 3’은 앞서 ‘학생 2’가 말한 다자녀 가정의 행복 홍보에 공동 육아 문화 정착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한 해결책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자 ‘사회자’는 토의 준비 과정에서 읽은 ‘학생 3’의 글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학생 3’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학생 3’도 공동 육아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7.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㉕)

‘학생 3’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후 그것을 제시한 이유를 밝히는 방식과 하나의 분야에 대해 언급한 후 영역을 확대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예상되는 반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토의 참여자인 ‘학생 2’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

하자, '사회자'는 자신이 봤던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러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뒷받침하였다.

② '사회자'는 중간에 '정리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토의 참여자들이 토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③ '학생 1'은 '~이 급선무입니다.'라고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과 '정부가 일자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인구를 정확히 계산하여 발표' 등을 제시하였다.

④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방안으로 과연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완곡하게 드러냈다.

[8 ~ 10] (작문)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①)

(가)에서 제시된 예상 독자인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나)의 1문단에서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소수 학생을~최근 미세 먼지까지 극성을 부리면서'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2문단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는 사실만 제시하였을 뿐, 인터뷰 대상의 선정 기준과 인원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나)에는 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실내 체육단련실 설치를 제시했을 뿐, 둘 이상의 개선 방안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열거하지는 않았다.

④ (나)에서는 운동장 사용과 관련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불만과 그 대안인 체육단련실 설치를 제시했을 뿐, 학교 구성원 각각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⑤ (나)에서 운동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언급했으나, 교내 체육단련실 설치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9. [출제의도] 작문 맥락에 맞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㉞는 현재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이고, ㉟는 체육단련실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이다. 이 두 자료로는 현재 학생들이 왜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㉞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A]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인 운동장 이용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다.

② ㉟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A]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체력 향상' 외에 다른 효과도 제시할 수 있다.

③ ㉟에 제시된 방과 후 운동 수업 개설은 [A]에 제시된 '요가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⑤ ㉟에서 인터뷰를 한 학생은 실내 운동을 통해 '체력이 생기고 군살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㉟에는 실내 운동의 기대 효과로 '체력 향상'과 '체형 관리'가 제시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체육 단련실 설치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운동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된 사례를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

마지막 문단의 수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나)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긋나는 단체 운동의 위험성에 관한 문장이 삭제되었고, 운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에 관한 문장은 추가되었다.

[오답풀이] ① 단체 운동의 편익은 수정 후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체력단련실이 학생들 외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편익은 수정 후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지 않았다.

④ 체육단련실 설치와 관련한 전망은 수정 전 마지막 문단과 수정 후 마지막 문단에 모두 제시되었다.

⑤ 체육단련실 설치와 관련한 전망은 수정 전 마지막 문단과 수정 후 마지막 문단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체육단련실이 학생들 외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편익은 수정 후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지 않았다.

[11 ~ 15] (문법)

11. [출제의도] 파생법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예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

㉞은 접미 파생법으로, 어근이 명사일 때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 부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집집이'는 명사 '집집'(예: 집집을 방문하다./집집에 알리다.)을 어근으로 삼아, 부사 파생 접미사인 '-이'가 결합된 것이므로 ㉞에 해당한다. 반면에, '곰곰이'와 '일찍이'는 부사 어근 '곰곰'(예: 곰곰 따져 보다./곰곰 생각하다.)과 '일찍'(예: 일찍 귀가하다./일찍 일어나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㉞은 접두 파생법으로, 접두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비공개'와 '생트집'은 각각 접두사 '비-', '생-'에 어근 '공개'와 '트집'이 결합한 것이어서 접두 파생법에 속한다. 반면에, '구경꾼'은 어근 '구경'에 접미사 '-꾼'이 결합한 것으로, 이를 접미 파생법에 속한다고 설명한 선지는 옳다.

② ㉟는 접미 파생법으로, 어근이 용언의 어간일 때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 명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달리기', '깎개', '울보'는 어근이 용언의 어간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③ ㉟는 접미 파생법으로, 어근이 체언일 때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만족스럽다'와 '슬기롭다'는 명사인 어근 '만족'과 '슬기'에 각각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과 '-롭-'이 결합한 것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⑤ ㉟에 나타난 접미 파생법은 동사 어간에 사동이나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피동사가 아닌 동사를 각각 사동사·피동사로 만드는 경우이다. '죽이다', '돌리다'는 각각 어근 '죽-', '돌-'에 각각 사동 접미사 '-이-',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이고, '끓기다'는 어근 '끓-'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사동사와 피동사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알아 두기 - 지문에 나오는 주요 개념 정리

- * **어근**: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 * **접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음.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
- * **접두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 **접미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 **용언**: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 형용사가 있으며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부름.

*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지는 못함.

12. [출제의도] 파생 접미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예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

[A]의 설명을 기준으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는 형태상 구별이 되었으나,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의 형태가 '-이'로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부사 파생 접미사가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옥담 노피 일천 니요'의 '노피'와 '기피 너덧 자만 흐고'의 '기피'가 파생 명사이다. 이 '노피'와 '기피'에서 어근 '높-'와 '깊-'을 제외하면, 명사 파생 접미사는 '-이'와 '-의'가 된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는 '-이/의'였고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였다. 따라서 '노피'와 '기피'는 파생 명사이고 '노피'와 '기피'는 파생 부사이다.

② 근대 국어 자료에서 '기피'는 파생 명사로 쓰인 것이고, '기피'는 파생 부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노피'는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의 형태가 같지만 '기피'가 파생 부사가 아니라 파생 명사이므로 둘 다 파생 부사라고 한 선지의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근대 국어 자료에서 파생 명사 '기피'와 파생 부사 '기피'의 관계는 중세 국어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근대 국어에 이르면서, '노피'가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 두 가지를 표기할 수 있게 변화했다. 이는 '노피'와 '노피'로 표기상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가 구별되었던 중세 국어와는 다른 점이다. 즉, 중세 국어에서나 근대 국어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는 그 형태가 같으므로 선지의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현대 국어 자료에서는, 근대 국어까지 부분적으로 존재했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가 완전히 '-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국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경우, 중세 국어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13. [출제의도] 사이시옷의 규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정답: ㉣)

지문은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에 관한 규정이다. ㉣의 '나무+잇'은 발음할 때 'ㄴ니' 소리가 덧나 ㉞를 만족시키므로 '나뭇잇'으로 적어야 한다. 그 외의 ㉠, ㉡, ㉢, ㉤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

'넉게'는 [넉게]로 발음되므로 ㄴ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ㄱ이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울소'는 [울쏘]로 발음되므로 ㅎ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ㅅ이 ㅅ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홀자'는 [홀짜]로 발음되므로 ㅌ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ㅈ이 ㅈ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오답풀이] ① '뭇을'은 [목쓸]로 발음되므로 ㅅ이 탈락되지 않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ㅅ이 ㅅ으로 바뀌는 된소리되지만 일어났다. '맑고'는 [막꼬]가 아니라 [말꼬]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지만 종성의 발음이 [ㄱ]이 아니라 [ㄴ]이다. '홀과'는 [혹과]로 발음되므로 ㄴ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ㄱ이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② '끓다'는 [끈타]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된 것이고, 된소리되기도 일어나지 않았다. '엷지'는 [언찌]로 발음되므로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ㅈ이 ㅈ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④ ‘닭고’는 [담꼬]로 발음되므로 ㄹ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ㄱ이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도 일어났다. ‘삼도’는 [삼도]로 발음되므로 ㄹ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났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밟다’는 [밥따]로 발음되므로 ㄹ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ㅍ이 ㅍ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도 일어났다. ‘없이’는 [업씨]로 발음되므로 ㅅ이 탈락되지 않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ㅅ이 ㅅ으로 바뀌는 된소리되지만 일어났다. ‘을지’는 [읍씨]로 발음되므로 ㄹ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ㅈ이 ㅈ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일어났다. ㄹ이 탈락된 후 남은 ‘ㅍ’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으로 교체된 것이다.

◆ 알아 두기 - 접반침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 제10항: 접반침 ‘ㄲ’,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ㅍ]으로 발음한다.
예) 녀[녀], 녀과[녀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뉘다[닐따], 외곶[외곶], 할따[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예)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밟는], 밟게[밟게], 밟고[밟꼬]
뉘죽하다[넙죽하다], 뉘둥글다[넙똥글다]

* 제11항: 접반침 ‘ㄷ’, ‘ㄹ’,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ㄷ]으로 발음한다.

예) 닭[닥], 흉과[혹과], 맑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젊다[점따], 을고[읍꼬], 을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예) 맑게[말게], 물고[물꼬], 얹거나[얼거나]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ㅈ, ㅉ)’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예) 쌓지[싸찌], 맑고[만꼬], 앓던[안턴], 닭지[달찌]

받침 ‘ㄱ(ㄷ), ㄷ(ㄹ), ㅈ(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예)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앓히다[안치다]

2. ‘ㅎ(ㅈ, ㅉ)’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예) 많소[만ㅆ소], 싫소[실ㅆ소]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ㅈ, ㅉ’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앓네[안네], 앓는[안는]
똥네[똥네→똥네], 똥는[똥는→똥는]

4. ‘ㅎ(ㅈ, ㅉ)’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많이[마나], 앓은[아는], 닭아[다라], 싫어[시러]

* 제14항: 접반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예) 녀이[녀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점머], 값이[갑씨], 할아[할타], 을어[을퍼], 값을[갑쓸]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

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접반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예) 녀 없다[녀겹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찌], 값있는[가빈는]

15. [출제의도] ‘-더-’가 결합된 어미가 쓰인 문장을 통해 각 어미의 의미적 차이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절을 구성하는데, 이때 절에서 묘사하는 상황은 현실에 실현되었을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에서 ‘-더라도’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은 사태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어미 ‘-더라’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화자가 과거에 직접 목격한 사건을 나타낸다.

② 어미 ‘-다더라’를 비롯하여 ‘-다’, ‘-라’, ‘-자’, ‘-냐’와 ‘-더라’가 결합한 형식은 화자가 직접 보았거나 생각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한다.

③ 어미 ‘-던’이 관형절에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어미 ‘-더니’는 ‘-더라’, ‘-던데’ 등과 함께 인칭 제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들은 화자 자신(1인칭)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쓰이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16 ~ 19] (인문)

1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1문단에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6문단에 ‘법가 사상에 기반한 법치 국가에서는 복수와 같은 사적 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진나라가 사적 복수를 인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진나라의 형법 중 견지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법은 심정을 처벌하다는 점에서 『공양전』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원심정죄와 지향점이 같’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진나라의 형법이 심정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5, 6문단에 의하면 한 제국은 덕치를 표방하는 유학 사상을 내세워 법가 사상의 엄형주의를 내세운 진나라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④ 2문단에 의하면 『춘추결옥』은 유교 경전에 입각해 사법적 판결의 원형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⑤ 4문단에 의하면 공양학에 기반한 형법은 처벌 대상을 미수뿐만 아니라 범행의 의도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 대상은 범행에 착수했으나 완결하지 못한 미수 단계부터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5문단에 의하면 ‘동중서의 형법은 역설적으로 한 제국이 진나라의 형법을 쉽게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동중서의 형법을 바탕으로 삼은 한 제국은 진나라의 법률 중 필요한 부분을 수월하게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중서의 형법이 진나라의 가혹한 형법과 완전히 단절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동중서는 마음에 근거하여 죄를 논단한다는 원심정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중서의 형법은 행위자의 심정과 동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4문단에 ‘동중서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나아가 범행 의도까지 처벌 대상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 중심주의를 현실에 적용한 동중서의 형법은 범행의 예비·음모의 단계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③ 4문단에 의하면 한 제국의 위정자들은 원심정죄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정치적 반대파들을 맹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한 제국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를 모반죄로 제거할 때 동중서의 형법을 적용하였다.

④ 4문단에 동중서의 형법은 ‘원심정죄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동중서의 형법은 인도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행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비인도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18.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3문단에 ‘『공양전』에서는 유덕한 자가 정치적 지위와 번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발생한 괴리를 해소하고자 관념적인 마음의 세계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즉 『공양전』은 유덕함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념적인 마음의 세계인 내면세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필기」 역시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정치적 역량과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거부하고 부덕한 자가 오히려 잘 사는 현실을 목도한 후 자기 내면의 일에 힘을 쏟으라고 강조한다. 「필기」도 유덕함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내면세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공양전』은 마음의 세계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필기」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양전』과 「필기」 모두 개인의 노력을 도외시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 의하면 「필기」는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 자기 내면의 일에 힘을 쏟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필기」는 하늘의 권위에 기댄 당시의 이상주의적인 믿음을 거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④ 4문단에 『공양전』에 바탕을 둔 ‘동중서의 형법 해석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 해도 처벌하지 않는 인도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양전』이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 의하면 『공양전』이 역사적 사건을 심정에 기초하여 평가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에 의하면 「필기」는 ‘세상일은 행위자의 의도나 자질과는 상관없이 타인들의 평가와 지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필기」가 세상일을 행위자의 의도에 비추어 평가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보기>에 의하면 정약용은 을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갑이 을의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었고, 을은 부모의 억울한 누명을 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판단은 6문단에 의하면 ‘가족을 파괴하는 외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권장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의지를 갖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공양학의 법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오답풀이] ① 동중서는 『공양전』의 동기 중심주의를 받아들였다. 또한 공양학의 법 이론에서는 복수와 같은 사적 처벌을 장려한다. 따라서 동중서라면 을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황해 감사는 을의 행위가 법으로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동중서가 황해 감사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황해 감사는 을의 행위가 인정으로는 용서할 만하나 법으로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황해 감사가 마음에 근거하여 죄를 논단한다는 원심정죄의 원칙을 따른 것은 아니다.

③ 5문단에 의하면 견지법은 '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범법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을의 행위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견지법과 관련이 없다.

⑤ <보기>에 의하면 황해 감사는 모욕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살해하는 복수를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 ~ 24] (사회)

20.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지문은 범죄의 성립 조건들, 즉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을 제시한 후에, 이 조건들 중 유책성과 관련된 사항인 형법 제10조 제3항이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학자들의 상이한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서 범죄의 구성 요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나오지 않는다. 5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원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가 서술되고 있지만, 이것을 구성 요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우리나라 형법과 외국의 형법을 비교하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③ 2문단에 유책성이 관습법적 전통에서 유래한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올 뿐이다. 다른 조건들이 어떤 관습법적 전통에서 기원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④ 4문단에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특정 조항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지문이 어떤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된 것도 아니다. 제10조 제3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만 서술되고 있다.

2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책임 능력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① 2문단 두 번째 문장에 의하면, 통념상 반도덕적 행위라 해도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다. 반인륜적인 행위라 해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안 된다.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 의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은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2문단 여섯 번째 문장에 의하면, 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습법적 전통이다. 즉 명정 상태라는 죄를 지은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여 형벌을 면제해 준 것이 관습법적 전통이었다. 관습법적 전통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비교적 오래된 관습이었을 것이다.

④ 6문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고의범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

22.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피고는 인지 능력 상실이라는 항암제 복용의 부작용을 모른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의 행위가 도주차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도 주 당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항암제 복용으로 인지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자신의 도주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 인지할 수 없는 책임 무능력 상태가 된다. 판사는 피고의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고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의하면, 피고의 도주 행위는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의 도주 행위가 도주차량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② 항암제 복용이 범법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판사의 판결과 아무 관련이 없다.

④ <보기>에 의하면, 피고가 운전한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으므로 피고가 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보기>의 어느 부분에서도 판사가 이 사실의 입증이 불충분했다고 추정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보기>에 의하면, 피고는 항암제 복용에 따르는 부작용을 미리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범으로 처벌되었다. 즉, 판사는 피고가 아직 책임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항암제 복용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유책성이 전부 소멸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5문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형법학자들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제10조 제3항 자체가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문화한 조항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이 유책성이다. 이때의 특정 조항이란 3문단부터 서술된 바와 같이, 제10조 제3항이다. 그리고 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제10조 제3항을 둘러싸고 형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③ 4문단 세 번째 문장에 의하면, 제10조 제3항은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든다는 것은, 곧 이 조항이 범법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 의하면, 제10조 제3항은 법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책임 능력 상실 상태를 자신의 의사로 유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⑤ 4문단에 의하면, 심신 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 즉 인지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 중, 그러한 책임 능력 상실 상태를 자신의 의사로 유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항이다.

2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6문단에 의하면,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일 때만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보기>의 사례에서 범법 행위인 상해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신 행위도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어야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오답풀이] ① 갑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므로 다수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인 행위인 술을 마신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② 4문단 두 번째 문장에 상해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6문단 네 번째 문장에 의하면,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 중 과실에 의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⑤ 6문단 네 번째 문장에 의하면, 원인 행위와 범법 행위 중 과실에 의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25 ~ 29] (현대시)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아보십니까」 / (현대시) 신동엽, 「산문시 1」 / (현대수필) 권정생,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작품 엮보기

(가)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아보십니까」

• 해제

「그 먼 나라를 알아보십니까」는 '먼 나라'로 상징되는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어머니'에게 묻는 형식 및 부드럽고 친근한 어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나) 신동엽, 「산문시 1」

• 해제

「산문시 1」은 '스칸디나비아'로 대표되는 중립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형태상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산문시이지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앞부분(스칸디나비아라든가~휠하더란다.) : 평화롭고 평등하며 자연과 문화를 가까이하는 중립국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함.

- 뒷부분(애당초~가더란다.) :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갈등 없이 평화의 신념을 지키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희망을 담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함.

• 산문시

산문 형식으로 된 시를 말한다. 시행을 나누지 않고 리듬의 단위를 문장 또는 문단에 두는데, 산문과는 달리 서정적으로 시화하여 묘사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 권정생,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해제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쓴 수필이다. 근대 격동기를 겪으며 살아온 글쓴이는 평생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 준다.

◆ 알아 두기

• 저 하늘에도 슬픔이: 신봉승 각색, 김수용 감독의 1965년 작. 불우한 소년 이윤복의 일기를 바탕으로 만든 실화 영화로 즐겨리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윤복은 노름에 빠진 아버지와 아버지의 학대를 못 이겨 집을 나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구두닦이를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핀다. 윤복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매일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가 담임 선생님의 호의로 책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각계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자 윤복이네는 가난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자 노름꾼이었던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치고, 집을 나갔던 어머니도 돌아온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다)에는 '겨울'과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직접 언급되어 있고, '외풍이 심해', '소나기가 쏟아지면' 등과 같은 계절감을 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의 글쓴이는 '여름'과 '겨울'에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여름에 소나기를 피해 방 안에 들어온 개구리들, 겨울에 추위를 피해 이불 속에 파고든 생쥐들과 관련된 체험을 통해 자연 속의 생명과 공감하고 조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는 계절감을 주는 표현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피약별’, ‘꽃밭’ 등이 계절감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청자인 ‘어머니’를 호명하고 있다.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라는 시구는 세 차례 반복되며, ‘부디 잊지 마세요’라는 당부, ‘고 새빨간 능금을 또 옥뚝 따지 않으시렵니까?’라는 제안도 ‘어머니’에 대한 호명 다음에 이어진다. ‘먼 나라’로 함께 가서 평화롭고 풍요한 삶을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절실함이 ‘어머니’에 대한 반복적인 호명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나오신단다’, ‘들어가더란다’, ‘흰하더란다’, ‘놀러 가더란다’ 등에서 ‘-단다’ 또는 ‘(-더-) + -란다’와 같은 전언의 의미를 담은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의 ‘흰 물새’, ‘야장미 열매 붉어’, ‘흰 염소’, ‘노란 은행잎’, ‘새빨간 능금’, (나)의 ‘무지개빛 분수’, ‘황톳빛 노을’에서 색채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는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와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 옥뚝 따지 않으시렵니까?’라는 시행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낸다고보다는 이상적 세계에 가서 함께 풍요를 누리자는 제안을 담은 것으로, 이 시의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는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굶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약탈과 살인으로 살전 육체보다, 성실하게 거둔 곡식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길이 아닐까?’ 등의 문장에서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추구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④)

‘목가’란 전원의 한가로운 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인 시가를 가리키며, ‘목가적’이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임을 뜻한다.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들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뽕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등 (가)에 묘사된 ㉔의 풍경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전원의 모습을 띠고 있다. 반면 (나)에 제시된 ㉕의 모습은 ‘백화점’, ‘서울역’ 등의 문명적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부들도 ‘대학’을 나오고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리석 별장’에 살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국무총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차 삼등석을 이용하고 대통령은 자전거 타고 시골의 시인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야만적인 놀이나 시설은 거부하고 지성적이며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㉔는 목가적인 삶을, ㉕는 문명적인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이

다. (가)의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을 회상을 통해 묘사한 공간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그려 낸 이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㉕는 ‘~라든가 뭐라구 하는’이라는 표현이나 ‘나오신단다’, ‘들어가더란다’, ‘흰하더란다’, ‘놀러 가더란다’와 같은 전언의 의미가 담긴 서술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화자가 직접 체험한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㉖는 ‘광부’와 ‘농부’가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대통령’이 ‘시인’과 교류하는 사회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㉖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㉔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므로, (가)의 화자는 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㉔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자 설정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 옥뚝 따지 않으시렵니까?’라는 표현에서, ㉔는 전원생활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나)에 묘사된 ‘광부’, ‘농부’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과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푸짐한 타작 소리’ 등의 표현을 통해 ㉕ 또한 풍요로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㉔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투영된 공간이며, ㉕ 또한 평화롭고 조화로운 인간 사회에 대한 화자의 염원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화자의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㉔와 ㉕ 모두 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투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㉒)

㉔은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이라는 표현으로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먼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㉔에는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㉔에 현재 겪고 있는 시련으로 인한 괴로움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비둘기’는 보편적으로 평화를 상징한다. ㉔에서는 ‘그 먼 나라’에 가서 많은 동물들 중 ‘비둘기’를 키우자고 하고 있는데, 이는 비둘기가 지닌 평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㉔은 ‘비둘기’의 상징성(평화)을 원용하여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③ ㉔에는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 등이 열거되어 있다. ‘새’와 ‘꽃’은 자연물, ‘지휘자’와 ‘극작가’는 예술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대통령 이름’은 잘 모르지만 자연물과 예술가의 이름은 흰하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정치적인 것보다 자연과 예술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의 ‘자전거’는 단순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값싼 교통수단이며, ‘막걸리’는 주류 중에서도 가장 값싸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처럼 소박한 수단을 이용하여 ‘막걸리’를 신고 ‘시골’에 사는 ‘시인’에게 놀러 간다고 하는 것을 통해, 소박하고 격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의 ‘기름진 고깃국을 먹은 뱃속’과 ‘보리밥을 먹은 뱃속’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각각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㉔은 ‘고깃국’과 ‘보리밥’을 대조하고 이것으로 인간의 위아래가 구분 지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빈부의 차이로 인간을 차별하거나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쓴이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㉓)

(다)에서 ‘나’가 거주하던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 집’은 허름하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소나기를 피해 온 개구리나 추위를 피해 온 생쥐 등을 만난다. 그들과 정이 든 경험을 통해 ‘나’는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굶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얻게 된다. 작고 힘없는 생명체(미물)이지만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다 죽는다는 사실에서 ‘나’는 그들과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가 무작정 집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동생을 결혼시켜야 하니 어디 좀 나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제안’이었다. 또한 동생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과 내가 집을 나온 일은 모두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② (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인 걸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 한 가지만 더 얻었다.’를 통해 ‘나’가 걸식 생활을 하다가 질병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한평생 당신들의 집이 없었다.’를 통해 ‘나’의 부모님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그것을 처분한 일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나’는 십육 년 간 살았던 예배당 문간방을 떠나 그 비슷한 흙담집에 살게 되었음을 언급한 후,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에게는 두 곳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나’는 이른바 선진국은 ‘침략과 약탈과 파괴와 살인을 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누리는,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일 따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의 구별 자체가 없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후진만으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나’가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선진국이 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㉒)

<보기>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 대응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초월적인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는 군국주의에 의한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 보면, (가)는 1930년대의 현실 세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화자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라는 초월적인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빨간 능금을 또 옥뚝 따자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적 세계를 상상 속에서 그려 낸 것일 뿐, 현실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누리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불만과 좌절을 안겨 줄 때,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초월적인 이상향을 꿈꾸기도 하며, (가)는 군국주의에 의한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던 1930년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의 화자는 현실의 거대하고 강력한 폭력 앞에서 개인으로서 아무런 해법이나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과 좌절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염원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불만과 좌절을 안겨 줄 때, 지향하는 세계를 외부의 본보기에 투영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동기로 삼기도 한다고 하였

다. 또한 (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냉전 체제에 예속되어야 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광부'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고되고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나)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는 틈틈이 '하이데거 러셀 헤밍웨이 장자' 등의 문학 책이나 철학 서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은 것처럼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광부들마저도 지적 관심을 일상에서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지성적인 사회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1960년대를 살고 있는 화자가, 자신이 소망하는 지성적인 세계를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불만과 좌절을 안겨 줄 때, 지향하는 세계를 외부의 본보기에 투영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동기로 삼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는 냉전 체제에 예속되어야 했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의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은 '중립국'으로서, '억만금을 준대도'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배짱 지킨' 나라이다. 냉전 체제의 중심인 미국과 소련이 남북 분단을 빌미로 한반도에 첨단 무기를 들여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1960년대의 상황이, 살상 무기 없는 중립국을 향한 화자의 염원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불만과 좌절을 안겨 줄 때, 주어진 현실 내에서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다)는 개인적 삶의 여정에서 우러나온 성찰과 지혜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다)의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문장은, 오랜 세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그곳을 찾아오는 동물들과 공감하며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갖게 된 글쓴이의 태도가 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와 (나)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상적 세계에 투사해 낸 반면, (다)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0 ~ 32] (교전시가) 정철, 「송림에 눈이 오니~」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 작자 미상, 「서경별곡」

30.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가)는 소나무 가지 위에 눈꽃이 피자 그것을 입 계산 데에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고, (나)는 하늘에 뜬 '외기러기'를 통해 독수공방하면서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알리고 싶은 바람을 노래한 작품이다. 즉, (가)의 눈꽃과 (나)의 '외기러기'는 화자와 입 사이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녹아진들 어찌리'는 화자가 보낸 눈꽃을 입이 보신 뒤라면 녹아 없어져도 관계없다는 의미이다. 단 한 번이라도 입이 보아 주셨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 표현이다.

② (가)는 4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고취하고 있지만, (나)는 특정 음보율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았다.

③ (나)는 입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고, (다) 역시 입과의 이별에 따른 화자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⑤ (가)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다)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①)

①은 소나무 가지 위에 핀 눈꽃을 말한다. 따라서 눈속에서도 아랑곳 않고 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시련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것도 작품 내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눈꽃은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은 눈꽃이 예쁘게 핀 소나무 한 가지를 꺾어 입 계산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상상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눈꽃 한 가지를 입이 본다고 가정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입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④ ㉢의 외기러기는 높은 하늘에 떠서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존재로, '적막 공구'에 갇혀 있는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자연물이다. 이를 통해 입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⑤ ㉣은 외기러기의 목소리를 빌린 시행이다. 화자의 요청에 대한 외기러기의 답변을 가정해 본 것인데, 이를 통해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C]에서는 '샤공'을 향해 '네 가시'가 바람난 줄을 몰라서 가는 배에 태웠느냐며 역정을 내고 있다. '샤공'은 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사태의 본질은 입의 마음이 화자를 떠났다는 것이지만, 화자의 억울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애먼 대상인 '샤공'을 향해 하소연한 것이다. 따라서 '네 가시'를 향해 역정을 내고 있다는 감상이나, '네 가시'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본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D]에 나타난 대동강 건너편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쇼성경'은 화자의 생활 터전이고, '질삼뵈'는 생계 수단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들을 모두 버리고 입을 좇겠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은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거부함으로써 떠나려는 입을 만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B]에서는 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자신의 사랑도 영원하리라는 뜻이다. 이는 이별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자 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D]에서는 입이 '대동강' 저편의 '고졸' 꺾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화자를 떠나 대동강 저편으로 간 입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함으로써 화자를 잊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입이 자신의 곁을 완전히 떠나갔음을 확인한 뒤 절망에 빠진 채 하는 독백이므로, 화자가 절망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⑤ <보기 1>과 <보기 2>에 따르면 [A]~[D]는 이별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이다. 즉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별에 직면하게 된 사람이 처음에는 이별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별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33 ~ 38] (과학)

33.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4문단에 '주로 질소나 헬륨이 이동상으로 사용되는데, 이 기체들은 고온에서 분석 시료에 대한 반응성이 낮고 이동 속도가 빨라, 동일한 혼합물 시료를 분리할 경우 분리 시간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짧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질소나 헬륨이 혼합물 시료에 대해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낮기 때문이다.

이 낮고 이동 속도가 빨라, 동일한 혼합물 시료를 분리할 경우 분리 시간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짧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질소나 헬륨이 혼합물 시료에 대해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낮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과학 수사는 약리학, 생화학 같은 여러 분야의 과학 지식'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화 되고 익명성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탐문 수사 같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 현장에 흩어진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증거를 얻는 수사 기법의 중요성이 크다.

③ 3문단에서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할 때, '이동상이 담긴 비커에 시료가 잠기기 않도록 담가 세워' 둔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는 시료가 액체 이동상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크로마토그래피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화학 물질을 화합물로 분리하는 기구일 뿐, 범죄의 증거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3문단에 따르면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결과는 특정 물질로 된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배 계수 값과 비교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6문단에 따르면, 크로마토그래피로 페인트의 조색 비율을 알아낸다고 해도 특정 회사의 페인트 조색비를 알아야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4. [출제의도] 지문의 중심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4문단에 '동일한 혼합물 시료를 분리할 경우 분리 시간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짧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혼합물을 분리할 경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분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온의 열에 약한 혼합물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기구'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온의 열을 가하면 쉽게 분해되는 물질을 분리할 때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③ 4문단에 '질량 분석기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부착하면, 특정 화학 물질을 이루는 성분 화합물의 구성비를 알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량 분석기가 부착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특정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화합물의 정확한 구성비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3문단을 보면,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실리카겔 혹은 산화알루미늄을 판에 얇게 발라 고정상으로 이용한다. 혼합물 시료는 이동상에 녹아 고정상에 빨려 판의 상단으로 이동하는데, 고정상과 친화성이 작은 화합물일수록(이동상과 친화성이 큰 성분 화합물일수록) 높이 올라간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정상인 실리카겔과 친화성이 작은 화합물일수록 판 상단으로 높이 올라감으로써 혼합물 시료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실온에서 진행되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고정상과 이동상을 선택할 수 있다. 혼합물 시료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과 두 상의 물질의 친화성 차이가 커질수록 분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검출이 예상되는 화합물이 있다면 그 화합물을 기준으로 친화성이 큰 이동상 물질과 친화성이 작은 고정상 물질을 선택하여 분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5.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의 내용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질량 분석기를 부착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동

상이 액체이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의 구조가 복잡해진다. 4문단을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기체이기 때문에 분석 시료를 기화한다. 질량 분석기는 '분석 시료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합물 간 충돌로 인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화된 화합물을 그 질량 대비 전하량에 따라 분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질량 분석기는 특정 화학 물질을 이루는 성분 화합물의 구성비를 알 수 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도 질량 분석기를 부착할 수 있지만 이동상이 액체이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의 구조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질량 분석기는 분석 시료를 이온화시켜야 하는데 이동상이 기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온화되지 않으므로 분석 시료를 이온화시키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질량 분석기는 분석 시료를 응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합물 간 충돌로 인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화된 화합물을 그 질량 대비 전하량에 따라 분류하는 장치이다.

③ 질량 분석기는 분석 시료를 액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합물 간 충돌로 인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화된 화합물을 그 질량 대비 전하량에 따라 분류하는 장치이다.

④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기체가 아니라 액체이다.

⑤ 질량 분석기는 분석 시료를 응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합물 간 충돌로 인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화된 화합물을 그 질량 대비 전하량에 따라 분류하는 장치이다.

36.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관련지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보기>를 보면, 분배 계수는 특정 시점, 특정 지점에서 시료가 고정상에 머문 시간이 이동상에 머문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분배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고정상에 머문 시간이 이동상에 머문 시간보다 길다는 의미이고, 분배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이동상에 머문 시간이 고정상에 머문 시간보다 길다는 의미이다.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분배 계수가 1보다 큰 화합물(고정상과 더 친화성이 좋은 화합물)은 분배 계수가 1보다 작은 화합물(이동상과 더 친화성이 좋은 화합물)보다 더 짧은 거리만 이동한다. '고정상과 친화성이 큰 화합물은 느리게 이동하고 이동상과 친화성이 큰 화합물은 빠르게 움직여 이동 거리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이동상보다 고정상과 친화성이 큰 화합물이라면, 분리관 안에서 이동상과 머무는 시간보다 고정상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를 <보기>에 제시된 분배 계수에 적용하면 분자가 분모가 보다 크다. 즉 분배 계수는 1보다 클 것이다.

② <보기>에 따르면, 혼합물 시료와 이동상, 고정상 사이의 접촉면이 커질수록 분리의 효과가 좋아진다.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관을 길고 넓게 만들면, 혼합물 시료와 이동상, 고정상 사이의 접촉면이 커져 분리가 용이해진다.

③ 지문의 2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들 사이의 상대적인 친화성 차이를 통해 혼합물을 분리한다. 따라서 고정상과 이동상, 그리고 혼합물 시료의 성분 화합물들 사이의 친화성 차이가 클수록 분리의 효과는 높아진다. <보기>에 따르면, 같은 원자로 구성된 화합물이라도 분자 구조와 형태에 따라 친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화합물이라도 분자 구조와 형태가 유사한 물질이라면 친화성이 비슷해 분리가 쉽지 않다.

④ <보기>에 따르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분리한 화합물들은 특정 물질로 된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해 고유의 분배 계수를 가진다. 분배 계수는 특정 시점, 특정 지점에서 시료가 고정상에 머문 시간을 시료가 이동상에 머문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

다. 따라서 분배 계수가 가장 작은 물질은 시료가 이동상에 머문 시간이 긴 물질이다.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이동상과 친화성이 큰 화합물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 끝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다.

37.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보기>를 보면, 머리카락 안에는 여러 경로로 신체에 흡수된 각종 화학 물질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또한 머리카락 단백질은 열에 대한 안정도가 높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분석이 용이하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질량 분석기를 결합하면 분배 계수가 알려지지 않은 신종 화합물이라도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중독성 약물은 열에 약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기화시켜 주입할 때 분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독성 약물을 검출하기 위해서라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선택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머리카락은 신체에 흡수된 각종 화학 물질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고, 단백질은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으므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면 머리카락에 흡수된 각종 화학 물질을 해당 물질의 성분 화합물로 분리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신체에 흡수되어 머리카락까지 도달한 각종 화학 물질들은 머리카락 속에 저장된다. 즉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오래 전 그 머리카락 부분이 자라던 시점에 흡수된 화학 물질까지 검출이 가능하다. 20cm 가량의 머리카락 안에는 대략 2년 동안 흡수한 화학 물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30cm의 머리카락의 모든 부위에서 특정 화합물이 검출되었다면, 머리카락 주인의 몸은 그 화합물을 2년 이상 흡수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④ <보기>에 따르면, 신체에 흡수된 화학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이동하다가 모세혈관 끝자락에 위치한 모근까지 이동하면 머리카락 속에 저장된다. 즉 화학 물질이 흡수된 시점에 자라난 머리카락의 부분에는 그 화학 물질이 포함된 채 길어진다. 질량 분석기가 부착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혼합물에 포함된 특정 화학 물질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의 생활 방식까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머리카락에 페인트가 묻어 있고 이 머리카락을 질량 분석기가 부착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면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을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6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여러 페인트 회사의 조색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질량 분석기가 부착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결과를 여러 페인트 회사의 조색 비율과 비교하여 어느 회사의 페인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과 ㉡의 '녹아'는 공통적으로 '결정체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에서 '얻는'은 '일꾼이나 일손 따위를 구하여 쓸 수 있게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 ㉡는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 또는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에서 '움직여'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다. 또는 그렇게 바뀐 생각을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에서 '알아'는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는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에서 '떠는'은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39 ~ 42]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최치원의 일대기를 허구적 소설로 각색한 것이 「최고운전」이다. 실제 인물인 최치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소설의 내용은 전해 내려오던 인물의 일화와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허구의 것이다. 윗글에서는 최치원의 뛰어난 능력이 초월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치원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중국 황제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 황제와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에게 주어진 현실은 신라왕의 박대이다. 그 결과 최치원은 신선의 세계로 아내와 함께 입적하게 된다. 능력의 우열을 통해 중국 황제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신라왕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주인공 최치원은 현실 세계에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윗글에는 부정적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 황제이다. 중국 황제가 최치원을 굴복시켜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최치원은 이에 도술로 맞서고 있다.

③ 중국 황제와 최치원의 대결이 흥미로운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최치원이 사자를 타고 중국에서 신라로 건너오면서 갈등의 양상이 바뀐다. 최치원과 중국 황제 사이의 갈등이 최치원과 신라왕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⑤ 제시문의 말미에 서술자가 사건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중국 황제가 자신이 땅을 지배하는 자라고 하자 최치원은 허공에 올라서서 자신이 중국 황제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속한 인물임을 보여 준다. 최치원은 중국 황제의 권위의 호소에 대응하여 예외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중국 대신들은 최치원을 모함하고 있다. 이는 최치원의 숨은 의도를 대신들이 알아차린 것이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비방에 가깝다.

② 안남 사신은 기이한 선비를 보고 그에게 시를 받은 것이지만 최치원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다.

③ 중국 황제는 대신들의 모함을 믿고 최치원을 유배 보낸 것이다. 최치원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④ ㉡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는 중국 황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말로 쓰였다. 중국 황제는 옛 문헌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중국 황제가 최치원을 다시 신하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 전개와 소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돼지 저(猪) 자가 적힌 종이'는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신라로의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국면이 전환된다.

[오답풀이] ① '간장에 적신 솜'은 최치원이 여행길에 우연히 만나게 된 노파가 그에게 건네준 것이다. 노파는 최치원의 조력자로서 그가 빠지게 될 위험을 예견하고 대비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소재는 아니다.

② 원래 '남쪽 바다의 섬'은 유배지로 무인도였으나, 최치원이 그곳으로 감으로써 서로 다른 세계의 인물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초현실 공간에서 현실 공간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 일 자'를 주인공의 학문적 소양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인물은 간 데 없고 '갓과 신'만이 남아 있는 것은

도가적 인물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관습적 표현으로 여운을 준다. 아울러 '갓과 신'을 통해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입신양명을 통한 주인공의 재기 의지를 읽을 수는 없다.

4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제시된 「최고운전」은 한문본이고, <보기>의 「최고운전」은 국문 이본으로 그 제목이 「최충전」으로 되어 있다. 한문본과 국문본의 서사적 지향은 결말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A]에서는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이 친구에게 숙임을 당하는 한편 신라 왕에게 내침을 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승리를 거두었던 최치원이 자국에 돌아와서 다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자가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중국에서나 신라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권력의 횡포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신라 왕의 내침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내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최치원이 신라 왕의 명령으로 세속을 떠나게 되고, <보기>에서는 세속을 비판하며 스스로 세속을 떠나고 있다.

② [A]에서는 친구와 신라 왕이 최치원을 적대하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신라인들이 최치원을 환대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신라 왕이 최치원의 공격을 직접 치하하고 있으나 [A]에서는 내침을 당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최치원이 세속에서 모습을 감춘 이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인물에게 신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43 ~ 45] (현대소설) 양귀자, 「한계령」

4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윗글의 서술자는 '나'이다. '나'는 주로 '은자'에게서 들은 그녀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을 반영하여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모양'이라는 표현에서는 서술자의 추측이, '비참한 과거'와 같은 표현에서는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며, '은자'의 삶을 '산봉우리'에 빗대어 일반적인 통찰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은자'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서술됨으로써 현재 '은자'와 '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윗글에서 공간적 배경이 상세하게 묘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부천'과 '원미동' 등의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 공간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산봉우리'는 힘들어 살아야 하는 인생의 과정을 상징하는 표현일 뿐, 윗글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은 '산봉우리'를 상징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과정을 구체적인 자연물의 형상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봉우리'는 인생길에 대한 보편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특정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윗글에서 '은자'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들춰 '나'에게 털어놓는다. 일본 공연을 갔다가 무작정 단체에서 이탈했던 일,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린 후 빚더미에 앉은 일,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다가 아이를 유산한 일 등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고백하는데, 이를 통해 '은자'는 자신이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은자'의 과오라고 볼 수 없으며,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윗글에서 갈등은 '은자'와 '나' 사이에 존재한다기보다는 '나'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윗글은 '은자'가 '나'에게 건네는 말을 두 차례 인용하고 있을 뿐, '은자'와 '나'가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건에 현장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은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㉑)

'기다린다'는 '은자'의 말을 통해 '나'가 '은자'를 만나러 '새부친클럽'에 가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녁밥도 일찍 마쳤다. 남편이 적극 권유하기도 하며, 아이는 일찍 잠이 들어서 방해 요인도 없다. 집 앞에 심심치 않게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 시내'로 나가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은자'를 만나러 '클럽'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나'가 ㉠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 자신의 내면적인 요인으로 인해 '은자'와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은자'와 '나'는 어린 시절 친구 사이였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고, 그동안 '은자'는 밤무대 가수, '나'는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 '작가 선생'과 '밤무대 가수 신세'라는 '은자'의 표현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두 친구의 현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친구에 대한 애정 섞인 투정으로 볼 수 있을 뿐, '나'를 향한 '은자'의 질투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뒤이어 '은자'는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현재의 자리에 오게 된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신이 '밤무대 가수 신세'라서 피하는 것이냐는 '은자'의 투정에 대해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본심은 아니지만, '은자'가 그런 투정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부정하기 어려울 만큼 두 사람의 현재 모습은 상이하다. ㉢의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나듯 '나'는 어린 시절 친구인 '은자'가 기구한 삶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에 대해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에서 '우리들의 대화는 어긋나고' 있는 것은 '은자'의 일방적인 오해 때문이 아니라 '은자'만큼 치열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나'의 자의식 때문이며,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색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자괴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은자'는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유산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은자'의 자긍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빛은 허구보다 자신의 삶이 더 극적일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⑤ '나'는 '은자'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한 발 한 발 산봉우리를 오르듯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한 경외감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글이 그러한 사람들의 실제 삶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밤일'로 대변되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은자'에 비해 삶의 굴곡을 제대로 겪지 않고서도 고상한 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 '나'는 ㉥에서 자신도 밤을 새워 글을 쓰고 있으므로 '밤일'이라는 점에서 '은자'와 공통점을 갖는다는 자기 위안을 시도해 보지만, '쉴새없게 웃어 버렸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은자'와 견줄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㉓)

<보기>에 따르면 「한계령」의 서술자는 인생을 산봉우리 오르는 일에 비유함으로써 삶에서 만나는 굴곡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연민과 경의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서술자인 '나'는 자신들이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정상을 향해 열심히 발을 옮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산봉우리는 쉽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은자'가 '마침내 봉우리 하나를 넘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온갖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안간힘을 다해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봉우리 하나'를 넘었다는 것이 '정상'에 올랐다는 뜻은 아니며, '나'는 '은자'를 비롯한 보통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굴곡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인 '나'는 '은자'가 정상에 오른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한계령」의 서술자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것을 계기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해 본다고 하였다. 서술자가 알고 있던 어린 시절의 친구 '박은자'는 '미나 박'이라는 밤무대 가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겨 있던 시간 동안 그녀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고 하였는데, 인생길에서 '넘어졌다'는 비유를 통해 '은자'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② <보기>에 따르면 「한계령」의 서술자는 관념적인 글을 쓰고 있는 자신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였다. 서술자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부천의 '원미동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서 들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실제 삶의 현장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을 써야 하는 곳이며, '굳건한 쇠문'을 여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미동 사람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매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한계령」의 서술자는 인생을 산봉우리 오르는 일에 비유함으로써 삶에서 만나는 굴곡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연민과 경의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나'는 '은자'로부터 그동안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중에서도 빚더미에 올라앉자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하며 밤무대에 서다가 아이를 잃은 일은 '더욱 비참한 과거'로 여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술하게 겪어야 했던 많은 실패와 좌절, 비유적으로 말하면 삶에서 만나는 굴곡 중에서도 매우 큰 사건이었던 셈이다.

⑤ <보기>에 따르면 「한계령」의 서술자인 '나'는 작가로서 관념적인 글을 쓰고 있는 자신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였다.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 중 하나인 '은자'는 소설을 읽어 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먹을 소설'뿐이고 '읽으면 잠만' 온다고 말한다. '은자'의 말을 들은 '나'는 '밤새 진을 빼' 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쓰고 있는 자신의 소설이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념적인 글을 쓰는 데 대해 반성하게 된다.